

〈번역논문〉

唐 王朝에서 궁정정변을 일으키거나 평정하는 데 참여한 三韓人*

姜 清 波 著

吳 佩 佩(우페이페이)** 역

〈목차〉

- I. 머리말
- II. 中宗 시기 궁정정변에 참여(평정)한 삼한인
- III. 玄宗의 궁정정변에 참여한 삼한인
 - 1. 王毛仲의 仕唐 事迹
 - 2. 李仁德의 仕唐 事迹
 - 3. 王景耀(耀)의 仕唐 事迹
 - 4. 小結

I. 머리말

『舊唐書』 권7, 中宗·睿宗本紀의 史臣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
“법이 균일하지 않으면 간사한 자들이 출현하고 정치가 통일되지 않으면

* 이 글은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의 제6장 「參與發動或平定唐朝宮廷政變的三韓人」을 번역한 것이다.

**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課程

붕당이 발생한다. … 살펴보건대 무릇 무측천 시절에는 장역지·장창종 형제[二張]의 저택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중종의 치세에는 태평·장녕·안락공주[三王]의 대문에 파도처럼 몰려들었다.²⁾ 진기한 물품을 바쳐 관직에 제수된 자들이 조정에 가득하였고 뇌물을 바쳐 斜封된 자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며 간교한 이득만을 추구하였으니, 심연에 던져진 불처럼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景龍 연간(710) 예종이 계위하면서부터 더러운 풍속은 일소되었으나, 여전히 현종과의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投杼] 태평공주와의 자리에서 맞장구치게 하였다. 투서로 빈번히 고변하여 황상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근신들은 현후에 대처하는 방도를 찾았고 천자는 변경을 순찰하라는 조서를 의심하였다.³⁾ 저들이 이미 활을 당겨 우리를 겨냥하였으니, 우리는 울부짖으며 형벌을 집행하였다. 이는 비록 태평공주의 허물이지만 또한 예종의 잘못이다. 무릇 군주된 자가 효성과 우애로 전범을 제시하여 본받도록 한다면 참람히 군주를 핍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래에서 분수에 넘치는 바람을 끄게 될 것이니, 자연히 치도가 혁신되어 재앙의 근원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종은 이미 이에 실패하였고 예종도 역시 얻은 것이 없었다.”

궁정정변은 중국 역사에서 줄곧 최고 통치자가 극도로 꺼린 사건이며 동시에 제위를 노리는 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다.

-
- 1) 조재우, 『『舊唐書』 권7, 睿宗本紀 譯註』, 『동국사학』 64, 2018, 618~619쪽 참조.
 - 2) (淸)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1, ‘睿宗論誤字’, “舊睿宗論, ‘孝和之世, 波注於三王之門.’ 三王當作三主, 謂太平公主·長寧公主·安樂公主也”(619쪽)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에 의거하여 해석하였다.
 - 3) 『資治通鑑』 권210, 先天 원년 11월 조, “上皇誥遣皇帝巡邊, 西自河·隴, 東及燕·薊, 選將練卒”(中華書局, 6679쪽); 『全唐文』 권19, 睿宗皇帝2, 「命皇帝巡邊誥」, 中華書局, 225~226쪽.

당 왕조는 중국 봉건 왕조의 전성기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황위 계승 제도가 가장 불안정한 시기의 하나로 궁정정변의 횡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황위 계승 시의 충돌로 인한 궁정정변과 통치집단 내부의 살상은 당 왕조 29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황위 계승제도와 직접 관련되는 태자와 제왕은 권력과 지위의 부침을 겪었으며 이 시기 정치제도 운영의 중요한 특색을 이루었다.⁴⁾ 정치권력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병권을 가진 將領의 추대를 받아야만 했다.

당 왕조는 민족교류 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용맹한 蕃將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당 왕조의 영토를 수호하고 개척하는 데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불가피하게 지배계층의 권력투쟁에 말려들었다. 그리하여 당의 궁정정변에는 많은 무장의 기백이 더해졌다. 이 변장들 중에 三韓人이 있었다. 당의 궁정정변에 참여한 삼한인은 籍貫이 주로 고구려인·백제인 혹은 그 후예들이었고, 신라인이 정변에 참여한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삼한인이 정변에 참여한 시기를 보면 武周 시기에서 현종 시기 사이, 특히 중종에서 현종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節愍太子 李重俊이 韋后를 제거하려던 정변, 睿宗의 즉위 정변, 그리고 玄宗이 太平公主를 제거한 정변이다. 이하에서 그러한 궁정정변에 참여한 고구려·백제인 혹은 그 후예에 대해 논술해 보겠다.

II. 中宗 시기 궁정정변에 참여(평정)한 삼한인

『全唐文補遺』에는 고구려인 高木盧가 당 중종 시기의 정변에 가담한

4) 謝元魯, 「隋唐의太子親王與皇位繼承制度」, 『天府新論』 1996-2.

정황이 전한다. 고목로와 관련된 사건은 『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과 기타 사적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재 그의 「唐陪戎副尉·直僕寺高府君(木盧)墓誌并序」⁵⁾(이하 「고목로묘지」로 약칭)는 그의 가업과 당에서의 경력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君은 이름이 木盧이고 渤海 靉[縣]人이다. 옛날에 [姜]太公이 周 왕조를 도와 王業을 열었다. 하늘이 보살펴서 命을 내려 東齊에 봉해졌다. 제사[鐘鼎]의 맛있는 음식이 700여 년 이어졌다. 후에 田和(즉 전국시대 齊 太公)에게 찬탈될 때 오랑캐의 땅[荒裔]에 나누어 살았다. 君의 먼 조상은 바다 모퉁이[海隅]로 피난하였다. 우리 皇唐에 이르러 순박한 교화[淳化]를 크게 펼치자, 이에 君은 큰 바다[溟渤]를 건너 고향[桑梓]으로 돌아왔다.

이에 의하면 고목로의 선조는 서주에서 춘추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齊國人이었다. “田和가 篡奪한” 사건에 관해서는 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周 安王 11년(기원전 391년) “齊 田和가 齊康公을 海上으로 옮겨 1城을 식읍으로 주며 그 先祀를 받들게 하였다”,⁶⁾ “田氏가 齊를 대신하였다”라고 하여 齊國에 동란이 발생하자 고목로의 선조들이 제국을 탈출하여 “바다모퉁이[海隅] 지역으로 피난하였다”고 한다. 「고목로묘지」에 따르면, ‘海隅’는 고구려[高麗]가 되어야 한다. 당 태종과 고종은 고구려와 백제에 군대를 보내 결국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고구려인과 백제인을 당으로 이주시켰는데, 묘지에서 “우리 皇唐에 이르러 순박한 교화[淳化]를 크게 펼쳤다”고 하는 것은 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고목로는 이때 “溟渤를 건너 桑梓로 돌아와” 당 왕조에 入仕한

5) 吳剛 主編, 『全唐文補遺』 第5輯, 三秦出版社, 1998, 353쪽. [역자주] 『隋唐五代墓誌彙編』 陝西1, 天津古籍出版社, 1991, 114쪽.

6) 『자치통감』 권1, 周紀, 安王 11년 조, 26쪽.

것이다. 묘지에 그를 ‘발해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당에게 이미 멸망한 고구려 출신을 밝히기 꺼렸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고구려왕의 후예인 高震도 이 때문에 자신을 발해인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양자의 정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묘지의 기록에 의하면 고목로는 81세의 나이인 開元 18년(730)에 사망하였기에 고목로는 649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당이 고구려를 평정했을 때(668) 그는 이미 20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 당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언급한 당에서 벼슬한 고구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항복하여 內地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에 들어간 후 고목로는 典廐署에서 근무하였다. 즉 묘지에 이른바 “높은 기개로 구름길[雲路]에 올라 황제의 주변[天庭]에 근무하였다. 중심[樞]에서 황제의 마굿간[六閑]을 담당하고, 직무는 三物을 관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六閑은 周의 ‘十二閑’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며, 당에서 왕실의 말과 마구간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구서라고 불렀다.⁷⁾

고목로의 인생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종 시기의 정변에 참여한 것이었다. 묘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때마침 中宗 孝和皇帝가 세상을 깨끗이 하고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일소하였다[廓清宇宙, 掃禳蕭牆]. 君이 소매를 떨치고 무기[戈]를 들어 황제를 호위하였다[御衛辰極]. 그리하여 이름이 역사[簡冊]에 기재되고 지위가 높은 자리[珪璋]에 올랐다.

여기서 ‘禳’은 요상한 기운이나 불길한 기운을 뜻하며, ‘蕭牆’은 본래 군주의 궁문에 마주하는 작은 담벽으로 ‘塞門’이라고도 하고 ‘屏’이라고도 한다. 대신이 이 屏에 이르게 되면 숙연하게 경건해지게 되는데, ‘蕭’는 ‘肅’

7) 『通典』 권25, 職官7, 太僕卿, 典廐署, 中華書局, 707쪽.

과 통하며, 蕭牆은 내부를 비유한다. 분명 고목로가 참여한 중종의 “세상을 깨끗이 하고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일소하였다”는 사건은 고목로가 궁정정변에 참여(평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종과 관련된 정변은 두 차례 발생하였다. 첫 번째는 神龍 원년(705년) 李唐을 지지하는 복벽 세력이 태자였던 중종과 접촉하면서 武則天의 병이 위중한 틈을 타 정변을 일으켜 무척천의 통치 시대를 끝마친 것이다. 두 번째는 중종의 셋째 아들 李重俊이 정변을 일으켜 정사를 어지럽히는 위황후와 무씨 세력을 척결하려 하였으나 중종에 의해 진압당한 것이다. 「고목로묘지」는 그가 참여한 정변에 대한 기록이 매우 모호하여 묘지문 자체만으로는 어떤 정변에 참여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만 한다.

묘지문의 “세상을 깨끗이 하고”, “나쁜 기운을 일소하였다[掃禳]”, “황제를 호위하였다” 등의 단어를 고려하면, 이 단어들은 그가 어떤 정변에 참여했는지를 막론하고 모두 해석이 통할 수 있다. 따라서 묘주와 관련된 다른 측면으로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첫째는 중종 시대의 궁정 상황이고 둘째는 고목로가 사망했을 때의 정세이다.

고목로는 개원 18년(730년)에 사망하였는데, 이때 당은 이미 개원 성세에 접어들었다. 중종의 즉위는 이미 무척천 세력의 운명이 거의 다한 것을 보여주지만, 중종이 무척천과 상반되는 많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친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척천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황제 칭호를 철회하라고 명한 것도 중종이 아닌 그녀 스스로 제서를 내려 철회한 것이었다.⁸⁾

무척천이 퇴위한 후 무씨 세력들은 비록 큰 타격을 입었지만, 武三思는 위황후의 비호 하에 계속해서 위세를 떨쳤으며 두 사람은 연합하여 중

8) 『자치통감』 권208, 中宗 神龍 원년 11월 壬寅 조, 6596쪽.

종의 서자인 태자 李重俊을 상대하려 하였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태자 이 중준은 정변을 일으켜 위황후와 무삼사를 제거하려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삼사를 죽였으나 위황후를 제거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이중준은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중준은 “그 머리를 太廟에 바치고 무삼사·무승훈의 영구에 제사지낸 연후 朝堂에 효수하였다”.⁹⁾ 이를 통해 그 모친 무측천에 대한 중종의 태도는 그 아들 이중준을 대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종 시대에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일소하였다”는 것은 무측천의 퇴위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이중준의 정변을 진압한 것을 의미한다. 또 중종이 시행한 정책으로 보면, 중종은 무측천을 대신하여 황제가 되어 무측천이 시행한 조치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특히 무삼사는 무측천이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복시켰다. 즉 “무삼사는 백관에게 무측천의 정치를 회복하게 하고 武氏에게 붙지 않는 자를 몰아냈다. 5왕에게 쫓겨난 자들을 복귀시키니, 대권이 모두 무삼사에게 돌아갔다”¹⁰⁾ 고 한다. 이를 통해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일소하였다”는 것이 무측천을 강제로 퇴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고목로가 죽었을 때의 정치 형세에 근거하여 다시 분석하려면, 예종의 즉위 전후의 역사적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중종 사후 이용기와 태평공주는 위황후와 무씨 세력을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예종의 즉위는 무측천 시대의 완전 종결을 나타낸다. 예종은 무삼사·무승훈의 과거 잘못을 추궁하며 작위와 시호를 모두 박탈한 후 그들을 부관참시하여 그 묘를 평평하게 하고 무씨의 崇恩廟와 吳陵·順陵을 폐지하였

9) 『자치통감』 권208, 中宗 景龍 원년 7월 辛丑 조, 6612쪽.

10) 『자치통감』 권208, 中宗 神龍 원년(705) 5월 癸巳 조, 6592쪽.

는데, 이는 모두 무척천의 옛 세력에 대한 복수였다. 예종은 또한 天后라는 무척천의 옛 칭호를 회복시키고 사망한 태자 이증준의 지위와 칭호를 회복시켜 ‘節愍’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척천 세력을 억제하고 이씨 황족을 발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실 매우 짧은 시간에 행해진 것이었다. 얼마 후 예종이 무척천의 존호를 더하여 大聖天后라 하였다가 다시 聖帝天后로 승격시키면서 절민이라는 이증준의 시호도 하마터면 철회될 뻔하였다.¹¹⁾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 고목로가 참여한 정변은 종종 시대의 제2차 정변이라고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그는 종종 일파의 진압자 신분으로 참여한 것이다. 정변 과정에서 고목로가 관할하던 廐馬는 정변 진압 성공에 유력한 보증을 제공하였을 수 있다. 고목로 자신도 “소매를 떨치고 무기[戈]를 들어 황제를 호위하였기” 때문에 정변(진압) 성공한 후 “이름이 역사에 기재되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고목로

11) 『자치통감』 권210,睿宗 景雲 원년(710) 10월 己亥 조, “諡故太子李重俊曰節愍。太府少卿萬年韋湊上書, 以爲, ‘賞罰所不加者, 則考行立諡以褒貶之。故太子重俊, 與李多祚等稱兵入宮, 中宗登玄武門以避之, 太子據鞍督兵自若, 及其徒倒戈, 多祚等死, 太子方逃竄。屢使宿衛不守, 其爲禍也胡可忍言! 明日, 中宗雨泣, 謂供奉官曰, ‘幾不與卿等相見’, 其危如此。今聖朝禮葬, 諡爲節愍, 臣竊惑之。夫臣子之禮, 過廟必下, 過位必趨。漢成帝之爲太子, 不敢絕馳道。而重俊稱兵宮內, 跨馬御前, 無禮甚矣。若以其誅武三思父子而嘉之, 則興兵以誅姦臣而尊君父可也, 今欲自取之, 是與三思競爲逆也, 又足嘉乎! 若以其欲廢韋氏而嘉之, 則韋氏於時逆狀宋彰, 大義未絕, 苟無中宗之命而廢之, 是脅父廢母也, 庸可乎! 漢戾太子困於江充之讒, 發忿殺充, 雖興兵交戰, 非圍逼君父也, 兵敗而死, 及其孫爲天子, 始得改葬, 猶諡曰戾。況重俊可諡之曰節愍乎! 臣恐後之亂臣賊子, 得引以爲比, 開悖逆之原, 非所以彰善癉惡也, 請改其諡。多祚等從重俊興兵, 不爲無罪。陛下今宥之可也, 名之爲雪, 亦所未安’, 上甚然其言, 而執政以爲制命已行, 不爲追改, 但停多祚等贈官而已”(6657~6658쪽). 상술한 기록은 이증준이 일으킨 궁정정변에 대해 예종 시대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기실 또한 자기 지위의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는 당으로 들어간 후 당의 휘황찬란한 발전과 거대한 격동의 수십 년을 경험하였는데, 흥망성쇠를 겪은 그는 말년에 당시 李唐이 추앙하고 성행하였던 도교로 전향하여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묘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가 해마다 허약해져 늙은 몸이 쇠약해졌다. 이에 [인생이] 한순간 이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허황됨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 속세를 버리고 道業을 숭상했으며 고향으로 돌아와 子家를 훈도하였다.

분명 반세기 이상 당에 살았던 고목로는 漢化되어 그 삶은 이미 唐人과 다르지 않았다. 개원 18년(730년) 고목로는 사저에서 병사하여 京兆府 崇道鄉 齊禮里 白鹿原의 우측에 묻혔다.

묘지에 의하면 고목로의 嗣子 高履生도 당에 벼슬을 하였으며, 부친이 죽었을 때 그의 관직은 ‘左領軍衛京兆府豐國府折衝都尉¹²⁾·仗內供奉·借緋長上·上柱國’이었다. 이를 통해 고리생도 당의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기록은 매우 간략하며, 「고목로묘지」의 묘지문을 제외한 다른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에서의 그의 행적은 더이상 살펴볼 수 없다.

고목로가 이충준의 정변 진압에 참여한 것과 반대로 또 다른 三韓人인 백제인 沙咤忠義는 정변을 일으킨 사람의 한 명으로 정변에 참여했다가 실패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사타충의는 당의 용장이지만, 그의 사적에 대

12) 『신당서』 권37, 地理志1, 京兆府·京兆郡 조, “領縣二十, 有府一百三十一”(中華書局, 961쪽).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 개원 연간에 豐國府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구당서』 권44, 職官志3, 折衝都尉 조, “上府, 都尉正四品上, 中府, 從四品下, 下府, 正五品下”(中華書局, 1905쪽). 高履生의 後文 중에 “借緋長上”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마땅히 정5품하의 官銜이다.

해서는 이미 [이 책의]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Ⅲ. 玄宗의 궁정정변에 참여한 삼한인

현종이 일으킨 두 차례의 정변은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그를 위해 피를 뒤집어쓴 용사들 중에는 출신이 한미한 삼한인들도 있었다.¹³⁾ 그들은 정변에 가담하여 출세하였으나 이후 운명은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당 현종이 일으킨 첫 번째 정변은 臨淄王이었던 唐隆 원년(710) 6월 수렴정정하려던 위후와 무씨 세력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변이 성공한 후 이용기는 황태자가 되었다가 곧 황위에 올랐으나 태평공주 세력의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先天 2년(712) 7월 3일 두 번째 정변을 일으켜 태평공주의 세력을 멸하였으며 이때부터 제위가 안정되었다. 사서에는 이용기를 수행하며 정변을 일으킨 고구려인으로 王毛仲만 기록되어 있는데, 필자는 출토 묘지 자료를 통해 史籍에 전하지 않는 또 다른 고구려인인 李仁德과 王景曜를 발견하였다.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구당서』·『신당서』의 왕모중전을 보완하고, 현종의 정변에 가담한 다른 고구려인의 사적을 고찰하여 당시의 주요 정치적 사건과 사회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13) 필자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당 현종의 궁정정변에 가담한 삼한인은 모두 고구려인이다.

1. 王毛仲의 仕唐 事迹

왕모중은 사적에 현종 정변에 가담한 사실이 명확히 기록된 고구려인이다. 왕모중의 아버지 王求婁가 죄를 지어 온 가족이 관노가 되면서 왕모중은 태어나자마자 임치왕 李隆基의 가노가 되었다. “성품이 영민하였던” 왕모중은 이용기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의 운명은 이용기의 지위가 바뀔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하여 당 현종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위후를 주살한 정변에서 현종의 수행 시종이었던 왕모중은 두려움으로 정변의 대오에서 도주한 뒤 정변이 성공하자 모습을 드러냈다. 이용기는 질책을커녕 오히려 그를 장군으로 발탁하였는데,¹⁴⁾ 이를 통해 왕모중이 이용기의 마음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평공주 세력을 주멸한 두 번째 정변에서 왕모중은 매우 활약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후 輔國大將軍(정2품 무산관)·霍國公(중1품 작위)에 봉해지고 식읍 500호를 받았으며, 左武衛大將軍(정3품 무직사관)·檢校內外閑廐·兼知監牧使 직위를 받았다.¹⁵⁾ 이때 閑廐使는 개원 중엽 이전 황실의 馬政을 주관하던 직책으로 천자 및 황실의 이동 안전과 관련되어 “충신이 아니면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 왕모중이 임명된 것은 “제왕의 감정이 담긴 주관적 결정”이었다.¹⁶⁾ 이를 통해 왕모중이 현종의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현종의 후원에 힘입어 왕모중도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奉公正直] 權貴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례로 그가 太僕卿이었을 때 “四部를 草定하던” 修書學士들이 “해를 넘겨도 완성하지도 못한 채” 도리어 직

14)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3253쪽.

15) 『신당서』 권83, 高宗三女, 太平公主傳, 3652쪽; 『신당서』 권121, 王琚傳, 4333쪽;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3253쪽.

16)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西北大學出版社, 1995, 26~28쪽.

무를 맡은 관리[有司]를 供擬에 지치게 한 상황에 대해 상주하여 그 內料를 중지시켰다고 한다.¹⁷⁾ 또한 그는 閑廐使로 있을 때 엄정하고 정성을 다해 관리하여 牧事에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한다. 특히, 개원 13년(725) 현종을 수행한 泰山封禪 때 구상한 기마대 설치는 현종 황제를 크게 기쁘게 하여 태산 아래에서 開府儀同三司에 임명되어 현종 즉위 이후 開府에 이르는 4명 중 1명이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왕모중은 또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도 하였다. 개원 9년(721) 4월 ‘蘭池賓胡’ 康待賓이 ‘諸降戶’를 꺾어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왕모중은 칙명을 받들어 朔方道防禦討擊大使의 신분으로 군사를 이끌고 진압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¹⁸⁾ 이는 그에 대한 현종의 신임뿐 아니라 왕모중이 군사 방면에서의 재능도 있음을 보여준다.

현종은 藩邸에 있을 때부터 왕모중을 매우 총애했다. 훗날 왕모중이 잠시도 곁에 없으면 현종은 실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왕모중이 딸을 시집보낼 때에도 현종이 직접 중매를 썼을 뿐만 아니라 왕모중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直臣 宋璟에게 예식에 참석하도록 강하게 명하기도 하였다. 왕모중의 처는 출산 후 현종의 御園을 빌려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왕모중의 ‘雙妻’였다. 왕모중은 본래 처가 있었으나 현종 황제가 그에게 처를 한 명 더 하사하여 두 부인이 함께 恩賜를 받아 國夫人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一妻多妾을 허용했으나 쌍처는 봉건 예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제의 권위와 총애로 인해 이렇듯 예에 어긋난 행위는 오히려 비할 바 없는 영광이 되었다. 세속의 의례도 지고무상한 황제권 아래에선 양보할 수밖에 없었

17) [역자주] 『신당서』 권199, 儒學中, 馬懷素傳, “懷素卒後, 詔祕書官並號脩書學士, 草定四部, 人人意自出, 無所統一, 踰年不成. 有司疲於供擬, 太僕卿王毛仲奏罷內料”(15682쪽).

18) 『자치통감』 권212, 현종 개원 9년 4월 및 7월 을유 조, 6745~6746쪽.

던 것이다.

왕모중이 갈수록 총애를 받자 조정의 백관 중 “부회하는 자가 폭주하였고” 張說조차도 그에게 아첨하여 재상에 배수되었다.¹⁹⁾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왕모중은 날로 교만해져 횡포를 부리며 발호하였다. 먼저 그는 환관들을 무시하였는데, 이는 현종의 신임을 함께 받는 대환관 楊思勳, 高力士로 하여금 극도로 불만스럽게 하였다. 또한 그는 금군 장령과 결탁해 법 집행에 간섭하기도 하였다.²⁰⁾ 왕모중은 후에 현종에게 자신을 병부상서에 임명해 달라고까지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현종은 원래 왕모중을 총애하였으나 일찍이 그의 악행을 듣고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종은 직접 두 차례의 정변을 일으키며 병권에 매우 민감하였기 때문에 왕모중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왕모중은 병부상서가 되지 못하자 불만을 토로하여 현종의 분노를 샀는데, 이때 왕모중은 군주의 금기를 건드렸다. 즉 『구당서』 권99, 嚴挺之傳을 보면

殿中監 왕모중이 太原·朔方·幽州에 使로 가서 兵馬를 計會하였는데,²¹⁾ 몇 년 후 太原에 牒을 보내 器杖을 요구[索]하였다. 엄정지가 조칙이 없음을 알고 또 왕모중의 총애가 오래되어 변고가 있을까 우려하여 몰래 상주하였다(3105쪽).

19) 『朝野僉載』 권5, 中華書局, 125~126쪽.

20) 『자치통감』 권213, 현종 개원 17년 5월 조, 6785~6786쪽; 『구당서』 권100, 裴寬傳, 3130쪽.

21) 『역자주』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開元]九年, 持節充朔方道防禦討擊大使, 仍以左領軍大總管王峻與天兵軍節度張說, 東與幽州節度裴旻先等計會”(3253~3254쪽); 『신당서』 권121, 왕모중전, “開元九年, 詔持節爲朔方道防禦討擊大使, 與左領軍大總管王峻·天兵軍節度使張說·幽州節度使裴旻先等數計事”(4335쪽).

라고 한다. 현종은 왕모중이 병마를 사사로이 징집한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였다. 상황은 왕모중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현종은 즉시 반응하여 왕모중을 폄적·살해하고 그 패거리를 제거했다. 왕모중에 의해 관리가 된 왕모중의 아들과 그와 친분이 있던 관리들도 모두 폄적되었다.

비천한 관노에서 강력한 권세를 휘두른 대신이 된 왕모중의 경력은 매우 전설적이다. “그는 관운이 형통하여 정치 도박에서 현종이라는 큰 나무를 기어올랐던”²²⁾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의 엄청난 흥망성쇠는 봉건 전제체제의 작동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짐이 곧 국가”였던 시대에서 제왕의 희로애락은 위로는 조정 중신에서 아래로는 비천한 노복의 운명까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중국 고대 역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모중의 벼슬길 부침과 행복·불행 역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2. 李仁德의 仕唐 사적

이인덕은 그 이름이 『구당서』·『신당서』와 『자치통감』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大唐故冠軍大將軍·行右威衛將軍·上柱國·金城郡開國公李公墓志銘并序」²³⁾ (이하 「이인덕묘지」)에 따르면 이인덕은 고구려 출신으로 현종의 정변에 가담하였다. 「이인덕묘지」에 의하면 “公은 仁德이라 하고 族이 李氏이다. 그 선조는 대개 樂浪望族이다. 말을 닮은 堯의 신하(즉 臯陶)와 용과 같았던 周의 사관(즉 老子)으로부터 眞裔가 먼 지방에 흩어져 姓을 보전하여 대대로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낙랑은 前漢 武帝가 한반도에 설치한 4郡의 하나이다. 묘지에는 낙랑인이라고 하는데,

22) 馬馳, 『唐代蕃將』, 三秦出版社, 1990, 152쪽.

23) 『唐代墓誌彙編』 下, 개원 370, 上海古籍出版社, 1992, 1412쪽. [역자주]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2020, 326~332쪽 등

즉 고구려인을 의미한다. 묘지에 고구려 유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망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인데, 이는 묘지문에서 상투적인 방식이다.

묘지에는 묘주가 당 현종의 정변에 가담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날에 中宗이 서거하였을 때 韋氏가 亂常하여 장차 백성을 해치고 宗廟를 위태롭게 하려 하였다. 그때 公은 의로운 기색을 띠고 충심으로 분발하여 皇明을 드러내어 紫闈을 해치고 번개처럼 내달렸고 左右로 질풍처럼 달렸다. 마음으로 새매가 되어 손으로 흉악한 자[梟鏡]를 베니 사람들이 기색을 새롭게 하고 궁궐이 깨끗해졌다. 한 사람을 도와 천하를 다스리니 功이 社稷에 보존되었고, 사방[四履]을 맡아 땅을 분배받으니 山河에 封固하였다. 그리하여 公을 雲麾將軍·行右屯衛翊府中郎將·金城縣開國子·食邑三百戶에 배수하였다.

여기서 “韋氏가 亂常하여”, “宗廟를 위태롭게 하려였다”는 것은 현종이 정변을 일으킨 원인을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은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며 구구절절 묘주가 정변에서 활약한 것에 대해 크게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변이 일어나던 날 밤, 현종은 “반포한 바의 制敕 백여 道”²⁴⁾를 통해 정변과 관련된 모든 방면을 계획하였으며, 그중에는 유공자에게 하사하는 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공로가 크면 將軍으로 삼고 그 다음이면 中郎將으로 삼았다”²⁵⁾는 것이다. 이인덕은 雲麾將軍·行右屯衛翊府中

24) [역자주] 『구당서』 권97, 劉幽求傳, “及韋庶人將行篡逆, 幽求與玄宗潛謀誅之, 乃與苑總監鍾紹京·長上果毅麻嗣宗及太平公主之子薛崇暉等夜從入禁中討平之. 是夜所下制敕百餘道, 皆出於幽求. 以功擢拜中書舍人, 令參知機務, 賜爵中山縣男·食實封二百戶”(3039쪽).

郎將·金城縣開國子·食邑三百戶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그가 정변에서 중대한 공을 세운 것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紫綬를佩하는” 지위에 배수되는 영예를 얻었다.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에 의하면 현종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를 따르는 자 가운데 李宜德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정변 이후에 중랑장에 봉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인덕과 이의덕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²⁶⁾ 필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당서』·『신당서』의 왕모중전에 의하면, 이의덕의 본명은 李守德이고 직관은 미상이며 젊었을 때 노비가 되었는데 당 현종이 潞州別駕로 있을 때 錢 5만으로 그를 사서 자신의 수행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의덕의 출신은 다소 비천했다. 또 「이인덕묘지」를 보면, 묘주가 정변에 가담하여 중랑장에 배수되기 이전의 이력과 그 선조의 사적에 관한 것은 은연중에 숨기고, 유일하게 언급한 선조로 “부친 甲子是 황조에서 定州別駕로 추증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다. 甲子에 대한 贈官은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인덕이 정변에 가담하여 공을 세운 후 주어졌을 수 있다. 그 선대의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지위가 낮은 탓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인덕과 이수덕은 출신이 비천하나 모두 정변 때 중랑장에 봉해졌는데,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개원 14년(726) 당 현종이 봉선할 때 직접 쓴 「紀泰山銘」 비문에는 “開國公臣 李仁德”이라는 이름이 있다.²⁷⁾ 「이인덕묘지」에 따르면 인덕은 금성군개국공에 봉해진 바 있다. 따라서 이 태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고구려인 이

25) [역자주]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以紹京·幽求知政事, 署詔敕. 崇簡·嗣宗及福順·宜德, 功大者韋將軍, 次者韋中郎將”(3253쪽).

26) 章群, 『唐代蕃將研究』, 聯經, 1986, 60쪽.

27) 王昶, 『金石萃編』 권76, 太山銘(『石刻史料新編』 第1輯, 법인문화사), 1304쪽.

인덕입에 틀림없다. 한편 李宜德은 정변에서 공을 세워 守德(당 현종이 하사한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나 인덕으로 개명한 기록은 없다. ‘수덕’이 현종이 하사한 이름이라면, 그가 죽은 후 묘지에도 마땅히 ‘수덕’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황제에게 하사받은 이름을 숨기고 언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李仁德은 후에 右威衛將軍·冠軍大將軍을 역임하고, 開國公으로 進封되었는데, 『구당서』 왕모중전에는 이수덕이 벼슬길에 올랐다가 嚴州員外別駕로 좌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右武衛將軍·成紀侯”라는 관작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의덕은 왕모중과 함께 현종의 측근이었지만, 『구당서』·『신당서』 왕모중전에 왕모중은 고구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의덕의 적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는 그가 고구려인임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상의 자료로 볼 때 이인덕과 이수덕은 동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 현종이 일으킨 두 차례의 정변은 불과 2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 「이인덕묘지」는 두 번째 정변에 대한 이인덕의 관여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묘지에 따르면 이인덕은 “말을 하사받는 은혜를 입고 하루에 세 번 천자를 알현하였으며 爵으로 귀함을 부리고 十卿으로서 諸侯와 祿이 같았다”고 한다. 이로 추단해 보면 이인덕은 위후를 주살한 이후 현종의 신임을 받았으며, 2년 후 태평공주 세력을 몰아낸 정변에도 가담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묘지에 따르면 “그리하여 公에게 冠軍大將軍을 더해주고 開國公으로 진봉시키며 식읍 2천호로 增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변 가담에 따른 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묘지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태평공주가 당 현종의 고모이기 때문에 본조 황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묘지명 찬자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회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인덕묘지」에서 묘주를 먼 지방으로 흩어진 堯臣의 후예에 비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인덕이 華夏의 심리를 가진 것을 충분

히 알 수 있다. 묘지문에 이인덕이 甲子の “元子”라고 적힌 것은 이인덕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음을 말해주지만, 다른 형제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묘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인덕의 후손에 대해서는 묘지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思敬으로 右驍衛中侯(정7품하 武職事官)이고, 다음은 思讓으로 右驍衛司階(정6품상 무직사관)이다”라고 하였다. 8세기 전·중기에는 두 명의 李思敬이 기록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개원 2년(714) 군대가 패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의해 참수된 ‘胡人 李思敬’이고,²⁸⁾ 다른 하나는 肅宗이 투항한 장수 史思明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內待 李思敬’이다.²⁹⁾ 둘 중 누가 이인덕의 아들일까? 혹자는 전자일 것으로 보는데,³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인덕묘지」에 의하면 이인덕이 개원 21년(733)에 죽자 두 아들 思敬과 思讓이 喪禮에 따라 “7일 동안漿을 끊었다”고 하지만, ‘胡人 李思敬’은 일찍이 개원 2년(714)에 참수되었다. 또한 馬馳의 고증에 따르면 이 ‘호인 이사경’은 말갈인 李謹行의 아들이다. 따라서 참수된 이사경은 이인덕의 아들이 아니다. 둘째, 이인덕은 당의 공신으로 그가 사망할 때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유공자를 內侍로 삼

28) 『자치통감』 권211, 개원 2년 7월 조, “薛訥與左監門衛將軍杜賓客, 定州刺史崔宣道等將兵六萬出檀州擊契丹. 賓客以爲‘土讐盛夏負戈甲, 齎資糧, 深入寇境, 難以成功’, 訥曰, ‘盛夏草肥, 羔犢孳息, 因糧於敵, 正得天時, 一舉滅虜, 不可失也’, 行至灤水峽中, 契丹伏兵遮其前後, 從山上擊之, 唐兵大敗, 死者什八九, 訥與數十騎突圍, 得免, 虜中啜之, 謂之‘薛婆’. 薛宣道將後軍, 聞訥敗, 亦走. 訥歸罪於宣道及胡將李思敬等八人, 制悉斬之於幽州”(6702~6703쪽).

29) 『자치통감』 권220, 肅宗 至德 2년 12월 기축 조, “安史之亂中, 史思明囚安承慶等, 遺其將竇子昂奉表以所部十三郡及兵八万投降朝廷, 唐以思明爲歸義王, 范陽節度使, 其子七人皆除顯官. 唐遺內侍李思敬与烏承恩往宣慰, 使將所部兵討安慶緒”(7048쪽).

30) 章群, 『唐代蕃將研究』, 469쪽.

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 아니라 내시는 어린 나이에 입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인덕의 아들 사경은 733년 이전에 이미 조정에 재직했고, 벼슬은 정7품하의 右驍衛中侯였으므로 나이가 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內侍 李思敬'도 이인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겠다.

3. 王景曜(耀)의 仕唐 사적

王景曜는 正史에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구당서』·『신당서』에서는 王景曜로 적고 있다. 하지만 열전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가 고구려인이고 또 현종의 정변에 가담했다는 기록도 없다. 여기서는 그의 묘지 「唐故右威衛將軍·上柱國王公墓誌銘並序」³¹⁾ (이하 「왕경요묘지」로 약칭)에 의거하여 그 적관과 현종 시기 조정에서의 경력 등을 살펴보자.

왕경요의 적관에 대해 「왕경요묘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공의 이름은 景曜이고 字는 明遠이며, 그 선조는 太原人이다. 옛날 쥘 말기에 거위가 땅에서 나가듯 공의 遠祖가 海東으로 피난하였다. 唐初에 이르러 龍이 하늘에 나니 공의 부친이 投化하여 근본으로 돌아왔다. 역시 李陵은 匈奴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흉노의 족속이 되었으나 蘇武는 漢으로 돌아와 漢代の 신하가 되었다. 공의 족속이 대대로 播遷한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聖主께서 이를 가상하게 여겨 京兆에 사제를 하사하니 지금 京兆人이 되었다.

묘지에 따르면 왕경요 조상의 적관은 태원이고 동진 시기에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동진 및 16국 시기에는 끊임없는 전란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

31) 『唐代墓誌彙編』 下, 開元413, 1441~1442쪽. [역자주] 『全唐文新編(22)』 권997, 吉林文史出版社, 15116~15117쪽; 광승훈 등 역주, 『중국 소개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283~284쪽 등.

들이 동쪽의 고구려로 피난을 갔다. 하지만 당대에 적지 않은 ‘蕃人’들이 중화문화를 동경하며, 스스로의 뿌리를 漢族으로 假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경요묘지」에서 그의 본적을 태원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東晉 말기부터 唐 왕조에 이르러 왕경요 가족이 “投化하여 근본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왕씨 가족은 이미 고구려화되었으므로 이때 入唐 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다.

‘海東’은 唐代 및 그 이전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범칭이다. 묘지명의 기록과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분석에 의거하면 여기서의 ‘해동’은 고구려를 가리킨다. 「왕경요묘지」에서 “唐初에 이르러 龍이 하늘에 나니 공의 부친이 投化하여 근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묘지에 따르면 왕경요는 55세로 현종 22년(734)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고종 調露 원년(679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묘지문에서 “공의 부친이 投化하여 근본으로 돌아왔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왕경요는 그의 부친 王排須가 당에 온 후 태어났을 것이며, 왕경요의 부친이 “투화하여 근본으로 돌아온” 시기는 당 태종 부자가 고구려를 정벌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당대에는 무릇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蕃人에 대해 조정은 예를 갖추어 대우하고 종종 경사에 큰 저택을 하사하였다.³²⁾ 묘지문에서 “聖主가 가상히 여겨 경조에 집을 하사하였다”고 한 것으로 추론해 보면, 왕경요의 부친 왕배수는 당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적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으며 泉男生을 따라 자발적으로 당에 투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왕경요묘지」에 의하면 왕경요는 당 현종이 위후를 주살하는 정변에

32) 馬馳, 「論仕唐蕃人之漢化」, 『唐史論叢』 7, 陝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묘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公은 忠貞이 성정을 이루고 廉直을 안에 품었으며, 특히 駕馭를 잘하고 廩牧에 밝았다. 처음에 殿中奉乘(정7품하 職事官)에 제수되고 얼마 후 七衛中候(정7품하 직사관)으로 轉하였으며 곧이어 率府司階(정6품상 무직사관)에 제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甘泉果毅(정6품상 무직사관)가 되고 얼마 안 되어 遊擊將軍(중5품상 무산관)·守翊府左郎將(정5품상 무직사관)이 더해지고 얼마 후 中郎(정4품하 무직사관)이 더해지고 右威衛將軍(중3품 무직사관)으로 승진하여 紫金魚袋를 借하였으며 아울러 이전과 같이 仗內하였다.

묘지에서는 묘주의 仕途에 대한 기록이 너무 간략하여 그가 官爵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마부[馭手]가 되어 5년[轉]만에 정7품하에서 정4품의 中郎將이라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정7품하에서 정5품상에 오르기까지 4년이 걸렸으며, 또한 정5품상에서 정3품의 우위위장군으로 높이 임용되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별한 공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위후 주살의 정변이 시작될 때 병력이 부족한 현종은 일찍이 “鐘紹京을 불러 總監 丁匠刀鋸 1백인을 거느리게 하여”³³⁾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왕경요는 당시 마부로 정변에 가담한 후 郎將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서에 따르면 정변 성공 이후 정변에 참여한 사람은 “공로가 크면 將軍으로 삼고 그 다음이면 中郎將으로 삼았다”고 하므로 왕경요가 중랑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바로 현종의 정변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왕모중과 왕경요는 모두 고구려 출신으로 『구당서』 왕모중전의 기록에서 왕경요와 왕모중이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현종이 제2차 정변을 일으키기 “하

33) [역자주] 『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3252쪽.

루 전날 왕모중이 內廄의 말 300필을 취하였다고³⁴⁾ 하는데, 마부인 왕경요는 온종일 御馬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때 그가 단순히 정변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2차 정변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中郎이 더해지고 右威衛將軍으로 승진한” 것 역시 정변에 참여한 보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경요묘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 후 親累로 말미암아 黨州別駕로 전출되었다. 天子가 治長의 非罪를 알고 樂羊의 忠赤을 생각하여 특별히 舊官을 회복시키고 이전과 같이 仗內로 하였다. 夏後의 2龍을 길들이고 周王의 8駿을 부렸으며 進奉의 妙가 황제의 마음에 簡하였다.

왕경요가 당주별가로 좌천된 것에 관하여 『구당서』 왕모중전에는 왕모중이 현종에 의해 좌천되어 살해될 때 왕모중과 평소 친분이 있던 장수들(將官)이 모두 강등되고 좌천되었다고 한다. 그중 왕경요는 당주별가로 강등되었는데, 이는 비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에 따라 묘지문에서 “얼마 후 親累로 말미암아”라고 한 것은 왕모중 사건에 연루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경요묘지」에 따르면 좌천된 직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특별히 舊官을 회복시키고 이전과 같이 仗內로 하였다”고 한다. 왕경요는 개원 22년(734) 향년 5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듬해에 “詔葬의 禮를 받들어” 부인과 함께 河南 平樂原에 합장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경요는 관직에 복귀한 후 사망 때까지 심지어 사후에도 현종이 줄곧 그를 신임하고 포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

34) [역자주] 『신당서』 권83, 高宗三女, 太平公主傳, “前一日, 因毛仲取內閑馬三百, 率太僕少卿李令問·王守一·內侍高力士·果毅李守德叩虔化門, 梟元楷·慈於北闕下, 縛膺福內客省, 執羲·至忠至朝堂, 斬之, 因大赦天下”(3652쪽).

며, 이는 당시 단순한 마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 배경에는 그가 일찍이 현종을 위한 특별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그것은 현종이 겪은 중요한 전환점인 두 차례의 정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왕경요가 현종이 일으킨 두 차례의 정변 중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정변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현종은 그와의 옛정을 특별히 여겨 그와 왕모증이 꾀한 죄를 면해주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신임해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현종은 비교적 넓은 마음, 심지어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묘지에 따르면 왕경요는 李氏와 高氏 성을 가진 두 명의 夫人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왕경요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또 그의 적자인 王右肱은 이름만 기록되었을 뿐 기타 사적은 전하지 않는데, 아마 당시 관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4. 小結

백제·고구려가 멸망한 후 양국에서 수십만 명이 당의 내지로 이주하였으며, 고구려인만 해도 최소 20만 명이 이주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당의 관직을 얻었고, 일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당시 환경에 적응하며 중용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백제인·고구려인의 사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궁정정변에 가담한 백제인은 매우 적었다. 필자가 현재 알고 있는 사적 기록에 의하면 沙陀忠義 한 사람뿐이며, 그가 정변에 참여한 것 역시 그가 공직에서 파면당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상실감에 결국 정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백제인이 정변에 관여했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인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정변에 가담한 고구려인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많다. 이들 고구려인은

처음에는 지위가 낮았으나 정변에 가담한 뒤 황제의 신임을 얻어 지위가 급상승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으로 온 많은 고구려 왕실 사람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貴臣들은 그러한 정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위가 낮은 고구려인의 후손들이 이러한 정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필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고구려 왕실과 貴臣들은 신분이 특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당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항상 신중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더이상 당의 정치적 시비에 다시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고구려의 권신이었던 泉男産은 입당한 후 公事 외에는 가무를 탐닉하며 다른 政事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천 시기의 잔혹한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고구려·백제 왕실 성원이나 貴臣들은 당의 정변에 가담하지 않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하층계급의 고구려인과 그 후손의 상당수는 중하급 將領이나 일반 평민의 후손들이었다. 비록 일정한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덜 끌 수 있었다. 당 사회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 정치·군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중하층 사회 출신의 관리들은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거나 중대한 사건에 휘말릴 때 특히 운명의 전환점에서 벼슬길에 올라 관직을 얻기를 더욱 갈망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적'인 심리상태에 쉽게 놓이게 되며,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그들이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왕모중·이인덕·왕경요 세 사람의 출신과 경력은 모두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발전하였다.

唐代는 개방적인 사회 풍조를 가진 왕조로서 이민족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덜 하였으며, 고구려인을 포함한 많은 이민족들도 자신의 민족적 출신 성분을 꺼리거나 소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왕모중·이인덕·왕경요의 경력은 이미 고구려인이라는 민족적 범주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사회성을 보여준다. 현종의 경우 자신의 지위가 견고하지 못하고 또 정치투쟁에서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전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보좌와 도움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위황후나 태평공주의 편에 속하였으며, 또 어떤 관리들은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정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는데, 이용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임하거나 이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출신이 비교적 비천하지만 진취적인 태도를 가진 중하급 관리와 노복들이야말로 현종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점이 현종으로 하여금 왕모중을 비롯한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고 포상하였던 것이다. 사실 과거 역대 왕조 군주들의 정치 형태는 모두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 없었다. 왕경요가 좌천되자마자 복직하고 죽을 때까지 현종의 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왕모중에 대한 충애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협 때문에 현종은 왕모중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모두 현종이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려는 초심[初衷]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고구려 등 三韓民族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화 문화를 받아들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認同感]으로 인해 삼한 인들은 다른 소수민족들에 비해 당 지배층의 인정과 신뢰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왕모중·이인덕·왕경요 등이 현종의 정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민족들을 포함한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지원으로 현종은 점차 자신의 통치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점차 당대 태평성세의 大幕을 열었다.

